‘학교 떠나는’ 고교생 급증

지난해 광주 888명·전남 898명…전국 평균보다 높아

교과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확대키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생활고 등 가정사정과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고교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모두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지난 2006년 633명(일반계 273명, 전문계 360명)에서 2007년 742명(〃 307명, 〃 435명), 2008년 888명(〃 363명, 〃 525명)으로 매년 20% 가량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 중 생활고와 가정불화 등에 따른 가정사정이 510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 및 비행(非行) 등에 따른 장기결석 201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177명 순이었다.

전남지역 고교생도 2006년에 821명, 2007년 798명, 2008년에는 89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는 광주의 경우 전체 고교생 중 1.32%, 전남은 1.24%의 비율로, 전국 평균인 0.96%를 웃도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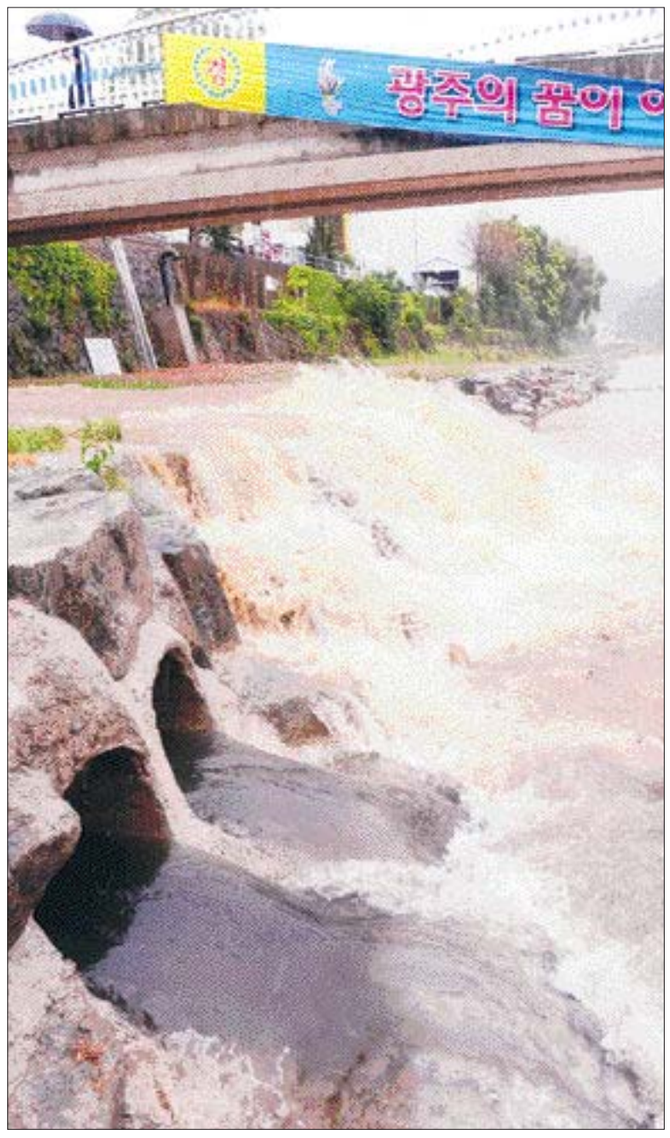
또 학업을 중단하는 중학생도 광주·전남에서 매년 각각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을 가동하고 있지만, 위기학생의 숫자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 상담 등 수동적 업무에만 의존하는 탓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폭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 9월까지 전문상담인턴교사 1천 614명을 전국 중·고교에 배치하고, 오는 2011년까지 학생생활지원단을 80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도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검은 양심’…빗물에 오폐수 방류 장맛비가 내린 23일 광주천 상류에 흙탕물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오폐수가 흘러들고 있다.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인근 업체나 시설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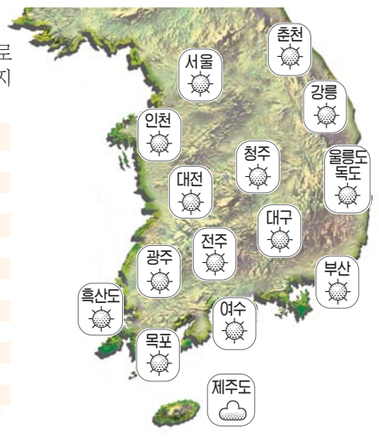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 해짐 19시 50분 — 달뜸 05시 17분 / 달짐 20시 31분

청명한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맑 음	18/30℃
목 포	맑 음	18/26℃
여 수	맑 음	20/26℃
완 도	맑 음	18/27℃
구 례	맑 음	18/30℃
해 남	맑 음	18/28℃
장 흥	맑 음	18/28℃
고 흥	맑 음	17/28℃
순 천	맑 음	19/29℃
영 광	맑 음	18/28℃
진 도	맑 음	18/27℃
전 주	맑 음	17/30℃
남 원	맑 음	16/30℃
흑산도	맑 음	17/24℃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서	0.5~1.5m
먼바다	북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먼바다	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2:26 / 14:21	07:46 / 19:41
여수	09:21 / 21:57	03:16 / 15:16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날 씨						
최저/최고	17/30	20/32	20/32	21/29	22/30	22/30

“빨갱이 오명 벗어야죠”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28년 만에 재심 결정

18년 옥살이 박동운씨 일가족 5명에

법원 “영장 없이 연행 가혹행위 인정”

“늦게나마 ‘빨갱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이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독립영화 ‘무죄’의 실제 주인공으로, 최장 18년간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2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 등은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뒤 두 달 넘게 감금 상태에서 수사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옛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85), 동생(62)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가족간첩단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농협 직원이었던 박씨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아버지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했다.

이후 박씨는 1998년 가석방됐으며, 박씨 가족의 사연은 김희철 감독의 독립영화 ‘무죄’로 만들어져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박씨는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지난 28년을 짓눌러온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꿈만 같다”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늘 돌아온 건 ‘빨갱이’란 비아냥 뿐이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군사정권 측의 사건 조작으로 인해 아내와 헤어진 것은 물론, 자식들의 생사 조차 모르는 신세가 됐다”며 “6·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1957년부터 가족과 간첩활동을 했다는데, 내 나이 12살에 가능하기나 한 얘기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박씨 가족 사건과 별개로 ‘80년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석달윤(75)씨 등이 재심에서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형공사 현장 안전 소홀 27건 적발

광주시, 장마철 긴급점검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시내 상당수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절개지 관리가 미흡하거나 도로 이음새 부분에서 균열이 우려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리업체들도 기록물 관리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현장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시공분야 18건, 감리업무수행 9건 등 모두 27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 시공·감리업체들에 개선·보완을 지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지도49호선 도로개설(1공구) 등 8곳은 절개지 관리나 도로 이음새 부분 균열 등 시공상태, 첨단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1공구) 등 7곳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빛고을시민문화관건립공사 등 4곳은 공사장 내 정리정돈 등이 각각 미흡했다.

또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곳의 감리업체가 공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나머지 업체도 비상주 감리업무·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공·감리상태는 양호했으며, 문제가 지적된 곳은 장마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관계공무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은 물론 범시민공동감시단 5명를 포함시켜 점검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우수학생 1% 집중 육성

40명 선발 통섭 교육

전남대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신입생 중 우수학생 1%를 선발해 대표 인재로 육성한다.

전남대는 최근 ‘총장명예학생(President Honor Students)’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참여할 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기초학문부터 응용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남대는 총장명예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구분없이 사회, 공학, 예술 등을 통합 교육하는 통섭(統攝) 학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11월까지 교육기간 중 학생 1인당 1과제를 부여해 연구논문을 작성토록 하는 한편 개인별 지도교수를 배정해 학생의 진로·적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배임액이 1천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연합뉴스